

#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5-02호> 2025년 1월 24일

## 정책/제도

### CES 2025에서 본 기술 트렌드와 전망

#### ■ 개요

-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가 성황리에 개최됨<sup>1)</sup>
  - 166개 국가에서 4천500여개 이상 기업이 참가(전년 대비 29% 증가), 14만명이 방문

[그림] CES 2025 전시장 전경



\* 출처 : ZDNET Korea

- 올해 CES의 주제는 '몰입(Dive in)'으로 '기술로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
- CES 2025의 5대 주요 기술 트렌드는 ① 버티컬 AI, ② 디지털 헬스, ③ 첨단 모빌리티, ④ 로봇공학, ⑤ 지속가능성으로 요약됨

1) 류은주, 'AI 세상 막 올랐다...CES 2025 구름 인파로 '복직'', ZDNET Korea, 2025.1.8., <<https://zdnet.co.kr/view/?no=20250108020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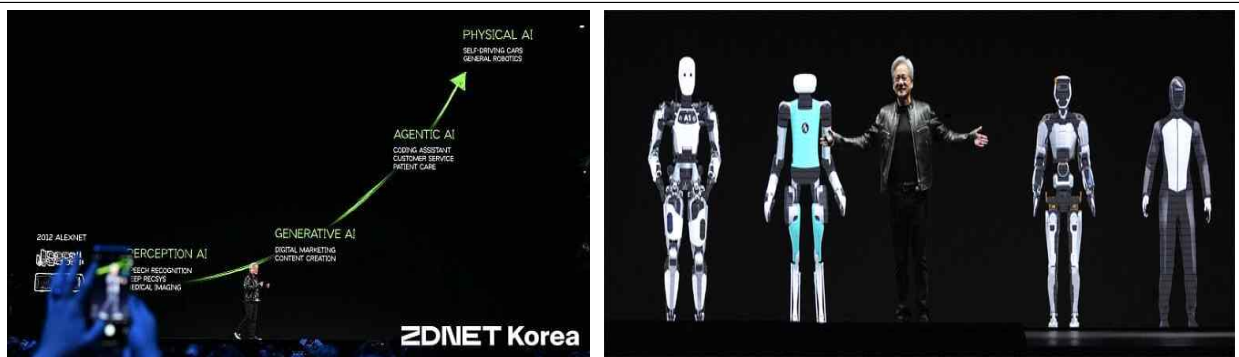
-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올해도 인공지능(AI)이었음. 다만, 이전 CES에서 AI와 같은 혁신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외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대거 공개됨에 따라 대중화로 전환하는 단계였다는 평가
- 이 밖에 주로 모빌리티, 로봇틱스, 디지털헬스 등의 테마를 다뤘으며, 올해는 양자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돼 주목을 받음

## ■ 주요내용

### 1. 기초연설

- CES에서 가장 많은 인파를 부른 인물은 바로 'AI 황제'로 불리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로, 그를 보기 위해 1만명이 넘는 인파가 기초연설이 열리는 만달레이베이 호텔에 몰리기도 함
- (기초연설 주요내용) 피지컬 AI(Physical AI)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표. AI 기술이 게임,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임을 강조<sup>2)</sup>
  - \* 그는 "AI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단순히 이미지를 이해하고 텍스트와 소리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물리적 세계에서 인지하고 계획하며 행동하는 AI로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
- 이와 함께 공개된 AI기반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은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행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음

[그림] CES 2025 기초연설을 진행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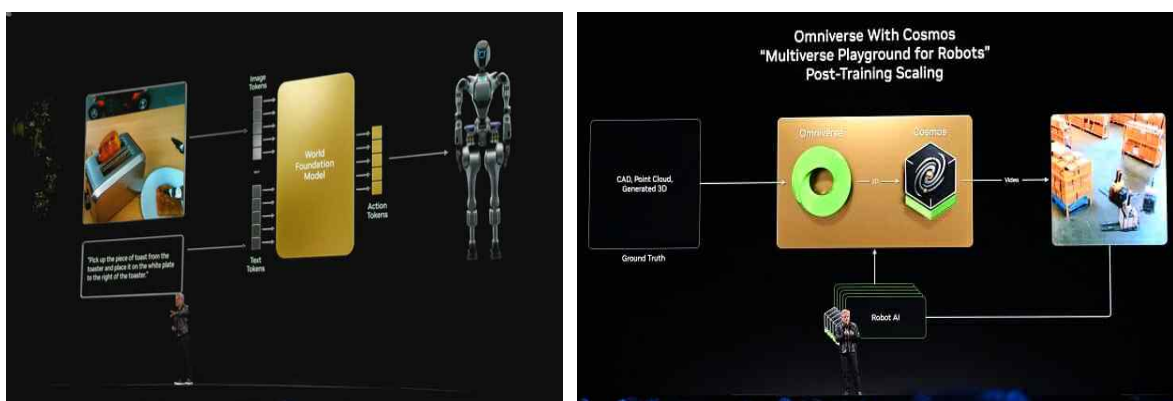


\* 출처 : ZDNET Korea

2) 'CES 2025 주요 기술과 트렌드로 읽는 미래 전망', KINX, 2025.1.21., <<https://blog.naver.com/kinxtime/223732459217>>

- (신제품 공개) 황 CEO는 이날 휴머노이드 등 로봇을 위한 AI시스템 ‘피지컬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 그 밖에 PC용 지포스 RTX 50 시리즈 GPU,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츠’ 등 신제품과 함께 AI, 로봇, 자율주행 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개<sup>3)</sup>
  - \* 다만, 기대를 모았던 SK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언급하지 않고, RTX시리즈 발표 당시 마이크론만 언급해 눈길을 끌었음
- (코스모스 플랫폼) 텍스트, 이미지 또는 비디오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가상 세계 상태를 영상으로 생성하는 플랫폼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의 실제 환경, 조명 등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해 예측 가능한 모든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AI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
  - 엔비디아는 코스모스 플랫폼을 오픈소스 플랫폼 GitHub에 오픈 라이선스로 공개. 우버와 현대차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이용해 자율주행 기능 개발에 활용할 예정
  -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는 자율주행 시나리오에 생성 AI를 결합해 자율주행 모델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백 배로 늘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젠슨 황 CEO는 “컴퓨터 그래픽스가 혁신을 이끌었던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도 혁신에 힘입어 향후 몇 년간 크게 가속될 것” 이라 전망

[그림]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코스모스 플랫폼을 결합한 사례



\* 출처 : ZDNET Korea

\*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다양한 장애물과 차량, 기상 환경을 담은 데이터를 통해 훈련이 필요하나 차량에 부착한 카메라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이런

3) 권봉석, ‘엔비디아 젠슨 황 "AI, 로봇·자율차 현실 세계로 활동 넓힐 것"’, ZDNET, 2025.1.7. <<https://zdnet.co.kr/view/?no=20250107170912>>.

한계를 극복하려면 실제 데이터 이외에 합성된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풍부하게 늘릴 필요가 있음

## 2. CES 2025 5대 주요 기술 트렌드

-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AI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이며 미래 사회의 비전을 제시. 산업 맞춤형 AI, 디지털 헬스, 첨단 모빌리티, 로봇공학, 지속가능성 및 안보 등 5가지 주요 트렌드를 통해 앞으로의 기술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sup>4)</sup>
- (버티컬 AI, Vertical AI) 산업 맞춤형 AI의 진화. 분야별 고유 데이터 및 비즈니스 로직을 반영하여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이 핵심으로 떠오름
  - LG전자의 ‘인캐빈 센싱’, 엔비디아의 ‘젯슨 오린 나노 슈퍼 플랫폼(Jetson Orin Nano Super Platform)’ 같은 기술이 각 산업의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활용

[그림] CES 2025 LG 전시관 내 ‘인캐빈 센싱’의 전시 모습



\* 출처 : SK telecom Newsroom

- (디지털 헬스, Digital Health) 웨어러블 기기 등 센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AI 디지털 케어 기술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음
  - 애보트(Abbott)는 소비자용 웨어러블 혈당 측정 솔루션인 ‘링고’를, 다쏘 시스템(Dassault Systems)은 인체를 도시 형태로 구성한 ‘디지털 트윈 바디(Digital Twin Body)’ 발표

4) 이종민, ‘변화의 물결 속으로! CES 2025 트렌드’, SK telecom News, 2025.1.13., <<https://news.sktelecom.com/209265>>



[그림] CES 2025 디지털 헬스 관련 제품 전시



[좌] 애보트 전시관 내 ‘링고’ 전시 모습  
[우] 다쏘시스템 전시관 내 ‘디지털 트윈 바다’ 전시 모습

\* 출처 : SK telecom Newsroom

○ (차량 및 첨단 모빌리티, Vehicle & Advanced Mobility)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극대화한 인간 중심의 기술로 발전

- 비엠더블유(BMW)는 운전자의 취향과 안전 등 개인화에 중점을 둔 차세대 ‘노이어 클래스’에 탑재될 파노라믹 ‘iDrive’ 시스템을 공개
- 소니혼다모빌리티는 럭셔리 EV(전기차) 아펠라 1(AFEELA 1)를 전시하고 가격과 예약 판매 세부 사항을 안내하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음
- 델타항공은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AI 비서 ‘델타항공 컨시어지’를 연내에 선보일 예정. 개인이 비행을 예약하는 순간부터 환승 등 이동을 조언하거나 예약을 도와주는 서비스 기획

[그림] CES 2025 디지털 헬스 관련 제품 전시



[좌] 소니혼다모빌리티 전시관 내 ‘아펠라 1’의 전시 모습  
[우] 델타항공의 초대형 스크린 PPT 화면

\* 출처 : SK telecom Newsroom / KINX 블로그

- (로봇공학, Robotics) 한국 기업 위로보틱스(WI Robotics), 포스코이앤씨, 토트(THOTH)는 극한 환경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선보이며 주목받음
  - 위로보틱스(WI Robotics)는 세계 최초 단일 구동기 기술이 적용된 웨어러블 로봇 ‘웜(WIM)’ 을 소개
  - 포스코이앤씨와 아이티원은 공동개발한 ‘콘크리트 시공 이음부 요철 생성 로봇’ 를 통해 로봇분야 혁신상을 수상
  - 토트(THOTH)는 EV 폐배터리 해체 작업을 수행하며 폭발 위험을 줄이는 로봇 ‘디스맨틀봇(DisMantleBot)’ 를 전시

[그림] CES 2025 위로보틱스 전시관 내 ‘웜(WIM)’을 체험하는 관람객의 모습



\* 출처 : SK telecom Newsroom

- (지속가능성과 안보, Sustainability & Human Security for All)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지속가능성으로, 예컨대 저전력 방식으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워터(WATER)의 ‘패러데이 리액터(Faraday Reactor)’ 기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
  - 일본의 스타트업 바이오닉엠(BIONIC M)은 로봇 의족 ‘바이오 레그(Bio Leg)’ 를 통해 CES 2025 Age Tech 분야 최고혁신상을 수상
  - 바이오 레그는 평지 및 계단 보행 등 일상에서 필요한 근육의 움직임을 로보틱스 기술로 재현해, 무릎 위를 절단한 환자의 이동성을 높이는 기술을 선보임

### 3. 한국기업의 위용

○ **(한국기업의 참여도)** 한국은 1천여개 기업이 참가해 세 번째로 많았으며, 지난해(760여개)보다는 50% 늘었음.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세계 292개 기업 중 129개 사가 한국기업일 정도로 국내 기업들의 존재감과 주목도도 높아졌음

\* 미국 CTA가 발표한 ‘CES 혁신상’ 461개중에서 한국기업은 절반에 가까운 210개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받은 혁신상이 130개로 61.9%를 차지했으며, 벤처·창업기업이 125개로 대부분이었음

○ **(K-스타트업 통합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25 CES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구축·운영

\* 통합한국관에는 36개 기관, 445개사가 참여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모든 AI 가전을 연결시킨 ‘스마트싱스’ 확장성을 강조하며, 오피스와 모빌리티 등 B2B영역으로 진출도 예고. 삼성전자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 요구를 반영한 5가지 유형의 집을 소개

- ▲최신 AI 기술과 스마트싱스 허브를 탑재한 다양한 제품 ▲조명·도어록에서 피트니스·헬스까지 보다 강화된 스마트싱스 생태계 ▲다양한 상황별 개인화된 홈 AI 경험 ▲집을 넘어 차량과 선박·빌딩까지 확장되는 홈 AI 진화를 볼 수 있음

○ **(LG전자)** LG전자는 올해 CES 전시장을 시간대별로 구분해 전시. 예를 들어 오전 시간대에는 AI홈 존에서 아침을 맞는 고객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을 나서면서 타게 되는 차량에서 AI 인캐빙 센싱 등을 소개

- LG전자는 전시장 입구와 한 가운데 대형 미디어아트를 설치해 관람객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세계 최초 투명·무선 77형 LG 시그니처 올레드(OLED) T 28대로 만든 초대형 미디어아트는 구글 이매진과 협업해 제작

### 4. CES 2025 평가

○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올해 CES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혁신기술은 없었다는 평가. 화려한 하드웨어보다는 일상생활에 접목한 소프트웨어인 AI 기술이 전시의 중심이었기 때문<sup>5)</sup>

- 참가 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가전, 자동차, 로봇 등 기성품에 탑재해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음

\* 하드웨어 제품 혁신이 줄어든 이유로는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카피(배끼기)를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 또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굳이 신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큰 매력을 기업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 (혁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주요 기업들이 인공지능(AI)·모빌리티 관련 혁신 기술들을 선보였지만, 이미 기존에 들었거나 본 것에서 크게 더함이 없다는 주변 반응이 주를 이루었음. 한마디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

\* 삼성전자 경영진은 일부러 전시 부스에 신제품을 전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예전엔 세계 최초·세계 최대를 추구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소비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며, “이번 CES에서 신제품 전시를 하나도 안 했고, 연결 경험을 중시하고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

## ■ 시사점

○ 일상이 점점 AI화 되어감에 따라, AI 산업의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었음

○ AI 산업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지 따라갈지에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달려있는 바,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집중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작성자/문의	대외협력실 정책연구팀 이상미 과장(070-7709-3726)
--------	--------------------------------------

5) 민단비, ‘[CES 2025·결산] 화려한 하드웨어 없었다...전시 풍경 바꿔놓은 AI’, 데일리안, 2025.1.13.,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50934/?sc=Naver>>.



## 참고자료

- 권봉석, ‘엔비디아 젠슨 황 “AI, 로봇·자율차 현실 세계로 활동 넓힐 것“’, ZDNET, 2025.1.7.  
<https://zdnet.co.kr/view/?no=20250107170912>.
- 류은주, ‘AI 세상 막 올랐다...CES 2025 구름 인파로 ‘복적’’, ZDNET Korea, 2025.1.8.  
<https://zdnet.co.kr/view/?no=20250108020140>
- 민단비, ‘[CES 2025 · 결산] 화려한 하드웨어 없었다...전시 풍경 바꿔놓은 AI’, 데일리안, 2025.1.13.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50934/?sc=Naver>
- 이종민, ‘변화의 물결 속으로! CES 2025 트렌드’, SK telecom News, 2025.1.13.  
<https://news.sktelecom.com/209265>
- ‘CES 2025 주요 기술과 트렌드로 읽는 미래 전망’, KINX블로그, 2025.1.21.  
<https://blog.naver.com/kinxtime/223732459217>

SPC 'ANGEL'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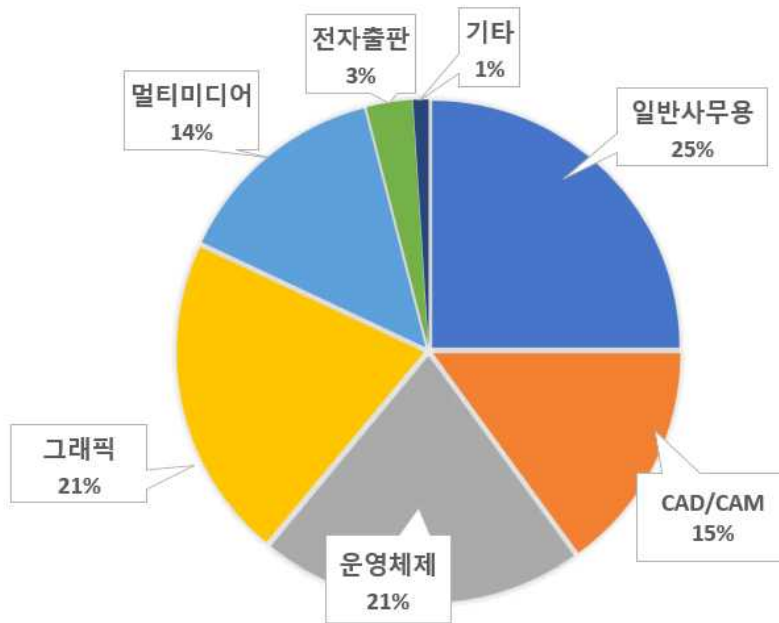
월 1회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ANGEL' 서비스 12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2월 한 달간(' 24. 12. 1. ~ 12. 31.)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87건으로 나타남
- SW 용도별로는 일반사무용 22건(25%), 운영체제 18건(21%), 그래픽 18건(21%), 설계(CAD/CAM) 13건(15%), 멀티미디어 12건(14%), 전자출판 3건(3%), 기타 1건(1%) 순으로 제보가 접수됨

[그림] SPC 'ANGEL(불법제보)' 서비스 2024년 12월 통계 현황

2024. 12.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통계  
-SW 용도별 제보 건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18년 11월부터 제보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을 개선한 불법복제 SW 제보 시스템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5-03호> 발간일은 2월 10일입니다.